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시리아軍, 반정부 거점 맹폭...하루 100여명 사망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를 피해 탈출하는 이데립 시 북서지역 주민들 (출처:AP)

### 유엔 시리아 결의안 무산, 오바마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3)

서방이 최근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시리아 정부를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무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시리아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정부 거점 흠스 폭격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전역에서 유혈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정부군의 유혈 진압으로 전날 시리아 전역에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흠스와 인근 마을에서 69명이 숨졌으며, 북부 이데립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북부 알레포에서 16명,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15명이 각각 사망했다. 흠스에 있는 활동가는 로이터와 위성 통화에서 “흠스의 바브 아르로 지역에 다시 폭격이 시작했다.”며 “전기도 끊겼고 모든 통신 수단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시리아국가위원회는 정부군이 탱크를 앞세워 흠스를 포위한 채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유혈 사태를 조속히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공격

에 나섰으며, 구급차는 부상자가 있는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에는 정부군이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흠스 인근 칼리디아를 공격해 하루에만 2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시리아 중부에 있는 흠스는 지난해 3월부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가장 거세게

정부군, 헬기까지 동원해 폭격  
시리아 전역 유혈 사태 악화

시리아국가위원회, 학살 우려  
유혈 사태 막아달라 호소

일었던 곳 중 하나다.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다니 지역에서도 정부군이 수백 대의 군 차량을 내세워 공격을 감행,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사태와 관련,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교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또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근무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다. 이번 조치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출처:연합뉴스 종합).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히박국 3:2)

시리아 땅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국제단체와 서방국가들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폭격과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불장군과 같이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려는 아사드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자멸의 길로 가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계속하여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이 땅 백성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압력에 의해 항복되는 것이 아닌 주의 영광의 빛 앞에 굴복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과 친송이 이 땅에 가득하며 그의 광명과 광선이 시리아 땅을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속히 주의 일을 성취하옵소서! [기도24.365 제공]

▶ 관련기사 3면

### INSIDE



▶ 기획  
- 영국 비전 트립 정탐보고  
"영국 땅에서 보았던 하나님, 한 영혼 기다리시는 아버지"



▶ 인터뷰  
- 축복의 통로  
한의도 전도사 (경일교회)



김용의 선교사 컬럼

##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혼돈의 시기인 사사시대. 주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미디안의 기에 눌려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사로 부름 받은 기드온. 그러나 그는 용맹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대적인 미디안에 겁먹어 포도주 틀에 숨어 곡식을 타작하는 초라한 모습의 주인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걸맞지 않은 듯한 이름으로 그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의미 없을 법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내 꼴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의 어떠한 때를 떠나 부르신 주님으로 인해 그 부름대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네 때가 이르렀다. 너 큰 용사다. 너 실패하고 작지만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부르심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 수준으로 부르신 것입니

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번의 양털 시험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응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가는 일을 허락하셨고, 기드온은 몰래 들은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통해 그제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셨음을 믿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름 받은 자가 이 부르심에 온전히 확증하기까지 그토록 힘을 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부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를 반드시 당신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해 내는 존재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신적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한 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견고케 하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그 대



군을 물리치겠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미디안을 치고 이 부르심을 이뤄내겠다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나라를 부흥케 하겠냐는 물음에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던 이스라엘.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주님이 그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기둥,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일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가장 완전한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

온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해 내는 존재로 친히 세우십니다.

신적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한 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견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부르심을 확증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부르심이 더욱 굳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광스런 싸움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온 열방이 내 앞에 나올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맞받아 승리의 대열 앞에 섭시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 떡

##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저자(著者)입니다”

루마니아 /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1991년. 공산주의 체제의 루마니아 정부는 현 체제를 증오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동안 밀어붙였던 정책을 수정하고 면모를 쇄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루마니아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허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대신 그들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루마니아 국민들이 공산주의 정부를 용서하도록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독교 메시지를 조종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계산이었다.

목회자들은 그것이 ‘체제 유지용’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을 기쁘게 수락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는 “우리가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압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목회자들의 용서의 메시지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 힘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25년 망명생활을 끝내고 루마니아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그러했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부는 범브란트 목사에게 TV설교를 요청하였고, 그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TV에 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단지 그것이 사랑인 연고로 자신

을 온갖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사악한 이들에게 악용되는 위험까지도 감수합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용하여 이익을 얻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므로 결국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산주의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불만을 품어 설교를 거부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성경은 뜻밖의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악(惡)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의로운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저자(著者)가 아니신가? 그러므로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유용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최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좌절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본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한 뒤에 도전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지난 겨울 인도의 바라나시 강가를 지나가던 중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여인과 마주쳤다. 맨발로 쪼그려 앉아 뿌자(힌두교 예배의식)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은빛 빈 통을 내밀었다. 간절하게 적선 베풀기를 구하지만 행인들은 매몰차게 지나쳐 버린다.

공허한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던 시간들. 나 역시 내가 진정 필요했던 것이 장밋빛 꿈이나 재물이 아님을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그녀도 동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해 줄 바로 그 분. 내게서 나오는 적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통로로 설 것을 결단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행 3:6)

- 사진제공 : WMM / 글 : 서진희(복음선교관학교 땅끝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 “목숨 바칠 사명을 발견했는가?”



류응렬 교수  
(총신신학대학원 교수)

“

교회 역사의 정점에 선 개혁가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복음이면 충분했다.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충분하다. 십자가를 증거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

이 글은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16일까지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과연 기독교역사의 핵심에 복음과 기도가 있는가? 복음과 기도로 세상이 정말 변했는가? 복음과 기도면 충분한가?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쓴 글을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셨다(눅24:27, 요5:39).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록됐다. 그렇기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신구약 전체에 있다. 복음 없는 윤리, 거룩한 삶, 구제는 경계해야 한다.

4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자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을 체험했다. 기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육에 속한 인간들이 변화되었다. 그들에게 예수만 있었다. 복음과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과 기도의 역사였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복음과 기도이다.

교회역사의개혁은복음과기도로 이루어졌다

중세 천년의 흑암을 걷어 낸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 루터와 칼빈이 하고자 했던 일은

복음(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연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목했던 예수는 놓치고 있다.

그 역사의 정점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다. 그들은 1721년경 진젠 도르프를 중심으로 태동했다. 1727년 8월 13일에 말씀사경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루에 한 시간씩 24명이 사흘간 기도했다. 이후 7일간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그들 중 제대로 된 신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 하지만 앞 다투어 선교사로 지원했다.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였을까?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것이 있었다. 복음이면 충분했다.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근본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이 한국에 일어났다. 이 땅에 복음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다. 교과와 배경을 달리했지만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공통적인 핵심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모펏 선교사는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어떤 복음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평양대부흥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복음과 기도였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체험한 후 눈이 열렸다. 전국 강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한 달이 되지 못해 전국에 불었고, 전국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흘렀다. 딤후4:1-8,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원문에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있다.

내생을 무엇을 위해 던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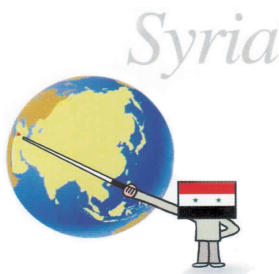
십자가 복음이다. 인본주의적 복음이 결코 아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충분한데 땅 위의 것 중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십자가를 증거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면 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뛰어나다고 교만하지 말라. 상대주의의 괴물을 죽이라. 영원한 태양이 다녀가셨다. 태양을 본 사람은 눈이 멀어야 한다. 태양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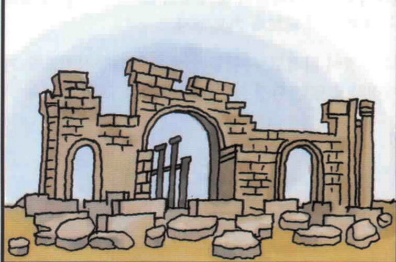
1면에 이어 -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 바울이 회심한 나라



면적 19만km<sup>2</sup>(1.9배)  
인구 2250만 (0.5배)  
도시화 54.9%  
종족 아랍인 90.3% 기타 9.7%  
종교 이슬람교 90% 기독교 6.3% 기타(드루즈교 등) 2.3% 무종교 1.4%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세계기도정보 2010>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60%는 사막이지만 유프라테스 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수십 년에 걸쳐 전쟁하면서 군비를 과대하게 지출해, 국가 발전의 저해를 가져왔다.



열악한 경제 기반 시설과 용수 부족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선교브리핑

## 호주, 애보리진 소녀 자살률 "위험 수위"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소녀의 자살률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일간 디 에이지(The Age)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보리진 부족이 많이 몰려 사는 호주 북부 준주(準州) 아동위원회의 하워드 배스 박사는 이 지역 애보리진 소녀의 자살이 17세 이하 전체 청소년 자살 건수의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11살 미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은 애보리진 가정에 만연한 마리화나와 음주, 폭력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배스 박사는 설명했다.

배스 박사는 "애보리진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은 다른 집단 여성의 80배에 달한다."며 "폭력에 노출된 환경은 애보리진 여성들로부터 목숨을 빼앗아갈 확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가정에 만연한 마약과 음주, 폭력 등과 함께 희망없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 위클리프, 미전도 무슬림 지역 성경번역 시작

성경번역 완료까지 1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Associates)는 기독교인 비율이 0.02%인 지역의 종족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을 시작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The Christian Post)가 최근 보도했다.

보안 상의 이유로 이 지역의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은 무슬림 정권이 다스리는 지역이며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의 부르스 스미스 대표는 이번 사역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든 사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역까지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은 복음이 공개적으로 전파 될 수 없고, 공공 장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닫혀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성경은 6800개가 넘는 세계 언어 중 2500개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세계 인구 70억 명중 47억 명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

# “영국 땅에서 보았던 하나님, 한 영혼 기다리시는 아버지”

20세기말 한국 땅에 입국한 선교사로서 처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영국. 순회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웨딩팀은 2011년 겨울 비전트립 여정으로 2011년 12월28일부터 2012년 1월15일까지 이 땅을 밟았다. 참여한 한 팀원의 고백과 사진들을 통해 재복음화 대상의 나라로 여겨지는 영국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 자신이 만든 하나님으로 이상숭배하는 땅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러 달려온 땅

영국에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정을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통해 이 나라에 관해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자신의 영역을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생활이 마치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받고자 하나 믿지 않는 자 보다 더 완악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이상숭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국에서의 일정은 참 바쁘게 돌아갔습니 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 대한 상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국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더 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1500년역사의기독교국에서...

고국에 돌아가서 영국의 이러한 상황을 짧은 3주간의 시간으로 보고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잘 정리하지 않으면 믿음의 보고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고백보다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매꾸기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500년의 유구한 기독교 역사 앞에 복음을 받은지 100년 남짓한 나라의 한국인이 와서 영국의 기독교를 운운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우습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빅토리아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의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낮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있으며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자. 이제는 그곳에서 삶의 목적도 이유도 상실한 채 앉아서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보고도 아무도 넣어주는 이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자. 그에게 주님은 내가 낮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며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주님은 굳이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이 낮은 것인지.

목적과 초점을 잃어가던 저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영국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지? 너는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느냐?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면 잘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과 책으로 더욱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선교는하나님마음을전하는것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100을 투자한다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100 이상의 결실을 얻겠지만 영국 땅에서는 10을 얻을까 말까 할 정도로 부흥의 불길이 이미 지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태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하지 않을 듯한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11:8)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게 선교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성취감을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의 목자가 되셔서 99마리를 제쳐두고 1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를 저주하며 살림을 다 가지고 가서 망해 돌아온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달려 나와 맞으시는 주님. 영국 땅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양을 향해 마음과 눈이 가 있으심을 봅니다. 영국 땅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하여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 선교란 어떤 유명한 몇몇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셔야 함을 알게 되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했던 어떠한 사역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심을 알게 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경화(영국 비전트립팀 웨딩팀)



Morley church(모리 교회)  
1904년 영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모리 교회  
본예배당은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서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당신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유대인 노방전도를 위해 전도문을 읽고 있는 모습.



조선 땅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하노버 교회 옆에는 토마스 선교사와 동일한 삶을 살다 주님 곁으로 간 교인들의 무덤이 있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청소년 대상 복음의 메신저로 섬기다 미전도종족 선교사로 파송

# “이 땅의 청소년이나 지구상의 미전도종족, 모두 복음이 필요해요”

- 축복의 통로  
한의도 전도사 (경일교회)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 왕따, 폭력, 자살 등으로 얼룩진 청소년세대에 복음이 이들을 푸른 그리스도의 세대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흐름 가운데 청소년 대상의 복음집회가 있다. 청소년복음수련회에서 메신저로 섬기고 있는 한의도 전도사를 만났다.

- 청소년복음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2010년 섬기고 있는 교회 아동부에서 중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바뀌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부서별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의 수련회가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들에게도 총체적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죠. 물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강의 할 자신도 없었구요. 그런데 한 가지 갖게 된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복음이 아니면 안된다는 확신 말이예요.”

- 기존 수련회의 틀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교회에서 반대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 중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이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3박 4일간 아무 프로그램 없이 말씀만 듣냐? 라는 반응이 있었죠.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지원서를 써라.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니가 의아해 하더군요. 이전까지 늘 역지라도 참석해주는 수련회였는데... 교회에서 받아준다 안받아준다 하는 게 당황스러웠 나봐요(웃음)”

- 순종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 안에 있는 오해와 두려움이 저를 어렵게 했어요. 섬기는 교회에서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함이 없다는 생각, 또 요즘 아이들이 과연 들을까? 재미있어할까? 사역의 열매는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물으시더군요. “너, 정말 나 신뢰하느냐” 이 복음이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신뢰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할 뿐임을 고백하게 되었죠.”

- 지금 복음수련회는 한 교회의 집회가 아니라 연합집회로 바뀌었는데,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 본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장소를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정도 만만치 않고, 그런 중에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두 교회가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진행하게 된 계기였죠. 물론 그때는 복음수련회를 더 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죠. 수련회를 마친 후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던 중 청소년들이 복음 앞에 서길 위해서

가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긴급함이 크셔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됐어요. 동일한 십자가 복음이 청소년에게도 생명으로 고백되는 것을 보았어요. 도저히 한번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해서 2기를 열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청소년들이 참석하며 지금 같은 모습이 됐어요.”

- 복음을 선포할수록 누구보다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총체적인 복음을 전할수록 누구보다 저에게 은혜가 컸어요. 한번은 진리를 선포하던 중 제게 실제 된 부분은 잘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복음을) 자랑하기 어려워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거룩한 통로로 서는 것이 맞지만 제 안에 마치 완벽하게 복음을 잘 살아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그것에 따라 나타난다고 여기는 착각이 있었던 거였어요. 복음이 복음 되는 것도 복음을 살아내는 주체도 주님이신데 여전히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드러내 주신 일이었죠. 그 이후 강의 시간은 정말 저에 대해 죽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할 뿐이었죠.”

- 청소년들이 가만히 앉아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어찌된 기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 과정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반응을 따라 제가 반응하면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아이들 대다수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더라구요. 처음 하루 이들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님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게돼요. 첫날과 마지막 날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기쁨이죠.”

- 끝난 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을텐데...

“물론 안타깝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예수생명으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너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특히 부모님들은 보이는 모습에 반응하지 말고 회복된 원형으로 바라봐주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이 원형의 생명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



부인 강은주 사모와 딸 소리와 함께 집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리를 그렇게 봐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죠.”

- 최근 다음세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아직 어려모로 미숙한데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만이 대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청소년들도 물론 죄인이구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 마련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세상의 심리학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랄 수 있을까요? 다음세대를 돕겠다는 차원에서 교회나 세상에서 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대안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더욱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소망을 주는 복음이 잘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도 섬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복음이 유일한 대안은 되겠지만 복음수련회라는 형태가 이들을 완전하게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대안은 아니죠. 교회, 가정,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느 곳에서든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수련회 한번 참석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 복음수련회는 총체적 복음을 듣는 곳이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야죠.”

- 복음을 만난 청소년들의 삶 안에 무엇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생명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온전히 보이지 않고,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영혼 안에 심겨놓은 십자가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 전도사님의 일상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겠죠?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는지 나누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교회에서 2007년 5월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동부 전도사가 된 후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때 제 안에 공허함을 허락하셨고, 9월에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였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서 있지만,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매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동일하게 설 수 없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복음수련회 잘 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가? 나는 십자가 앞에 서고 있는가? 이 부분 앞에 서지 않으면 설 수 없기에 그때그때 믿음으로써 하세요.”

- 최근 청소년복음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나누어 주길 원하는 분들의 요청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해외 현장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월 20일 주간에 영남 ‘원형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자 모임’(원회모) 목사님들의 기도와 요청으로 영남 1기 복음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들을 총체적 복음 앞에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와 함께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열방의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시급성에는 제게 비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인데요. 마24:14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제목이 있으면 나누어주세요.

“교회에서 올해 우리 가정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셔서 사실 올해 초에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딸 소리가 태어난 후 예방접종 때문에 6개월 이후에나 움직이게 됐어요. 기도제목이 있어요. 먼저 파송하는 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구요. 그 통로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파송할 수 있는 단계와 연합할 길을 구하고 있는데요. 잘 연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청소년 복음수련회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앞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이 각 지역과 영역에서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회도 계속 이어지도록,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Y.D

## 기도의 삶

##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영적 맹인의 눈이 떠져 예수생명으로

교회에서 열방기도센터를 시작할 때 저의 기도제목은 문제해결과 소원성취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저의 되된 본성은 그 기도마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고민과 힘겨움에 넘어져 있을 뿐 기도만큼은 하지 않던 게으르고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능력 있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세상을 향한 소유욕에 사로잡혀 화려하고 대접받는 자리는 좋아 했지만, 멸시받고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정욕을 합리화하기에 잘 빨랐습니다. 열심히 사울과 같았던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던 자의 모습이 복음 앞에 드러난 제 30년 신앙생활의 결국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한다고 기독교국제학교를 보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그럴 듯한 유혹에 한 학기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교육열에 미친 학부모가 되어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들은 죄인의 본성대로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아들의 가출이었습니다.

나의 열심, 결과는 아들의 가출

저에게 전부였던 아들의 가출로 인해 침상에 누워 울고만 있었고 기도자로서 어떤 자격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때에 주님은 교회에서 열방기도센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까지 갔을 때에야 마지막 방편으로 결정한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침에 나가서는 육신의 힘이 남아있을 때까

지 기본적으로 7시간 정도 열방기도센터에서 머물렀을 뿐인데 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상황이론이나 중심이론이나 기도엔 순종을 드릴 수 없었던 그 때, 자아의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도 주님은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 시간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벽 기도도 못하는 게으른 저에게 새벽 1시를 시작으로, 지금은 3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체로 미친 거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가슴 졸이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심한 공격에도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후 복음학교에 가게 되면서 특공대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수준의 기도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주님은 ‘너 왜 그 따위로 기도하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바라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건축하길 시작하십니다. 사단의 공격 또한 더 커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공격이 커질수록 더욱 강한 주님의 힘

사단의 공격은 이제 총체적인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닌 삶 속에 작은 순간, 일상을 통한 치밀한 공격으로 허를 찌르곤 합니다. 한 번은 사단이 저의 약한 부분인 아들로 인한 슬픔으로 공격했습니다. 가장 싫어하고 걱정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젠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지금 이 꼴이잖아.’ 자녀 사랑이 남달랐던 저에게 자녀의 배신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죄와 사망의 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내가 더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람의 모든 방법을 끝내고 주님이 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중까지 알게 하시고 나 죽고 주님 사는 예수생명으로 더욱 살게 하십니다. 예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어나야 하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저의 운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보이며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존재로 세우시며 그날을 앞당기고 계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진희 집사(대전성산감리교회)

## 기도의 능력

## “진실된 기도는 불평을 제거한다”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고든 박사는 죠셉 라비노위츠와 대화하면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적 시편을 아침과 저녁 예배시간에 강해해 나갈 때 그 얼굴에서 비취는 광채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여기저기서 고난 받은 혹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있을 때에 그는 갑자기 손과 눈을 하늘을 향하면서 도마가 그리스도의 못 자국을 본 후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경외에 찬소리로 외쳤다.” - 매킨타이어

시편은 찬양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은 기도의 결과로 돌려지고 있다. 기도의 응답은 고마움을 유발시키고 고마움은 사랑을 낳는다. 그 사랑은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는 그치지 않는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 116:2) 고마움과 사랑은 기도를 더 넓히고 더 증진시킨다.

감사치 않는 심령은 고마움과 찬양 곁에 거할 수가 없다. 진실 된 기도는 불평을 제거하며 고마움과 감사를 촉진시킨다. 진실 된 기도가 있는 곳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곁에 굳건히 있으며,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에 대해 반응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다.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응답도 고마움과 찬양을 가져온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 자체다. 그것은 기도의 향기이자 음악이요, 기도의 시(詩)며 기도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할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 또한 우리가 심히 원하는 바를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원을 두시고 할 일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끊임없는 영원에 걸쳐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억할 때 그것은 더 큰 기쁨이다. 이러한 기쁨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결코 피곤치 않을 것이다.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

## 말씀의 삶

## “복있는 자, 사단의 사악한 덫에 걸리지 않는 자”

시편 1:1 계단식·삼중병행어법

사특한 악인의 행동양식 보여줌

시편 1:1절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계단식 병행어법”과 “삼중 병행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계단식 병행어법이란 그 형태가 계단의 모양과 같아 시의 사상이 점점 고조되어 완성되는 문학기법을 말한다.

시편 1:1에서는 중요한 세 동사가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다-서다-앉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간의 행동양식은 생각을 “따라가” 구체적인 장소에 “서서(머물리)” 자리에 “앉아” 동지를 틀게 되는 법이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일단 발을 옮겨 어떤 곳으로 걸음을 옮기면, 호기심을 갖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기웃거리다, 마침내 자리를 틀고 앉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 속아 헤어날 수 없이 사단의 밤이 되고 만다.

여기에 덧붙여 삼중으로 완벽하게 나열된 병행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3중 병행어법을 사용한 이유는 악인들의 도덕적 표준이 해이되는 사특한 과정을 심도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세 동사와 더불어 사용된 명사들, 즉 악인-죄인-오만한 자(조

롱하는 자), 꾀(음모)-길(통치)-(어두운)자리, 이와 같은 명사들은 삼 겹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 악인의 행동양식이 얼마나 힘이 있고 사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전 4:12).

한 번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들면 거기서 빠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단에게 한 번 자기 영혼을 파는 자는 결코 사단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교묘하고 사악한 계계(인터넷, 성(性), 재물)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중독,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아추구의 삶,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명예, 권세, 영광, 출세의 자리로의 이동, 여자를 남겨둔 가장 약한 곳에 그냥 치고 들어오는 사단 앞에, 방어벽 하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넘어져 당하고 마는 우리의 힘없는 모습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와도 싸우기 힘들고 벅겁다. 사단은 권세를 잡고 아예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를 가지고 온 세상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



한다.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통이 깨졌지만, 사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나아가, 그 자리에 굳게 올라서서 십자가로 자신을 넘기는 길 외에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 너머에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찢으려 달려드는 무서움이 있음을 간파하고 사단의 속이고 속이는 자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약4:7)

김명호 목사  
(고대근동언어문화연구소 소장)

2012년 2월의  
「느헤미야52기도」참여 교회

▷ 9주차 (2월27일-3월3일)  
대전성산감리교회-느헤미야 이영훈  
봉화현교회-느헤미야 김동준

▷ 10주차 (3월5일-10일)  
정릉교회-느헤미야 박경옥  
청주임마누엘감리교회-느헤미야 김현중  
우리사랑의교회-느헤미야 서정학  
대구풍성한교회-느헤미야 이해락  
나무와씨앗교회-느헤미야 신순애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 “모든 교회에 열방기도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 충신감리교회, 열방기도센터 개관 2주년 기념 기도컨퍼런스 개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난 2년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기쁨과 은혜를 모든 교회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집으로 드러 순종해온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24일 충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 목사)에서 열린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7)는 말씀을 좇아 24시간 365일 교회의 가장 좋은 공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충신열방기도센터를 개관했다. <창간호 2010.10.3. 참조>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본질을 구하며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복음과 기도를 붙들며 걸어온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 대한 소개와 또 다른 지역 교회의 열방기도센터 사례발표(안선익 목사·대전성산교회)와 함께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의 ‘교회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어나라’, 박종진 선교사(국제선교



충신감리교회 열방기도센터에서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가 드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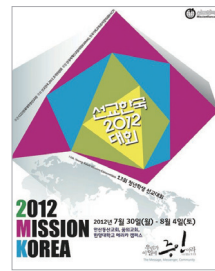
교회 담임)의 ‘그날을 향한 기도의 대연합’, 조완순 선교사(기도24365본부)의 ‘복음과 기도’ 등 주제강의가 진행된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 될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온 이채선

사모는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리를 갖길 원한다”며 이 같은 부르심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초청했다. 충신열방기도센터 문의 ☎ 02-587-1004.

### 2012 선교한국, 1차 등록 3일 2일 시작

조지 머레이, 유기성 목사 등 100명 강사 참여



2012년 선교한국 대회를 위한 1차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꿈의교회, 한양대 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리는 선교한국대회는 4400명 선착순으로 참석 가능하다.

1차 등록마감일과 등록비는 5월 31일까지며 학생 13만원, 일반 14만원이며 최종 3차 등록마감은 7월 23일까지이며 학생 15만원, 일반 16만원이다. CCC(한국대학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주강사 조지 머레이(콜롬비아 국제대학 총장) 박사를 비롯 저녁메시지에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영길 선교사(GMP), 정민영 선교사(WBT) 등 국내외 100여명의 선교사들이 이 대회를 섬기며 선교적 삶으로 도전한다.

### 느헤미야52기도정보 캄보디아어로 번역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선교단체 기도24365본부는 최근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복음과 영적 전쟁’이 캄보디아어로 번역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음과 영적전쟁의 중국어판 번역을 시작으로 발간된 번역본이 영어, 일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에 이어 11번째 언어의 번역본이 발간됐다. 기도24365본부에 따르면, 이번 캄보디아어 번역은 자발적인 현지인의 섬김에 의해 진행된 결과물이다. 베트남인이 먼저 베트남어로 번역된 복음과 영적전쟁으로 기도하던 중 마음을 받아 캄보디아 현지인을 섬피, 번역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기도24365본부측은 “한 사람이 먼저 기도를 통해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이에게 알려,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일은 참 의미있는 현상”이며 “열방 곳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품는 기도자들이 활발히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순회선교단 한국본부, 인천 신도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

### 열방기도센터는 3월5일부터 천보산민족기도원 선교관 방문 가능



이전하기 전날, 짐무더기와 짐을 실은 트럭 뒤로 펼쳐진 일몰 풍경. 신도센터에서 보는 마지막 일몰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인천 신도에 동지를 틀었던 순회선교단 한국본부 신도센터가 2월초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천보산민족기도원 선교관과 경기도 남양주 광전면 등으로 이전했다.

2004년 12월 믿음의 섬 신도(信島)로 입성한지 만 7년만의 이전이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중학교 폐교시설에 입성했던 순회선교단은 7년의 시간동안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졌고, 이곳에서 열방기도센터 개원 등 복음과 기도를 믿음의 원리로 붙잡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신도 열방기도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등 복음과 기도의 발전소, 충전소 역할을 기억하는 동역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 외부 동역자는 전화를 걸어와 “신도 열방기도센터를 다녀오면 누렸던 은혜를 한동안 되새기며 푸근했던 기억을 갖고 있

다”며 “이제 믿음의 텃밭 같은 곳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신도 순회선교센터 옆에 위치한 신광교회를 섬겼던 순회선교사들은 떠나기 전 주일 예배시간에 모든 사역자와 가족들이 특송으로 작별인사를 대신하는 동안,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된 성도들은 눈시울을 적시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눴다고 소식을 전했다.

한편, 기도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던 열방기도센터는 이사 일정 동안 신도에서 인천 항동 요셉의 창고로 옮겨져 기도의 불을 계속 지켰고, 2월 13일 이후부터는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열방기도센터를 섬기는 이광수 선교사는 “열방기도센터 방문은 3월 5일(월)부터 가능하며 먼저 홈페이지(wmm119.org)에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031-527-4641



## 영상으로 만나는 다시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출시

2011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3박 4일간 열린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실황이 DVD로 출시되었습니다. 15명의 강사진이 전한 17편의 주옥같은 복음과 기도의 메시지를 이제 가정,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동맹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한 이번 DVD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사모하는 복음기도동맹인들이 더욱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 Disk 1 : 다시복음앞에 전체 스케치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
- Disk 2 : 김용의 선교사 /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유병국 선교사 / 복음의 주재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 Disk 3 : 권영조 목사 / 복음과 기도  
유영진 교수 /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총체적 복음
- Disk 4 : 박보영 목사 /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유기성 목사 /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 Disk 5 : 송천호 목사 / 나는 복음에 빛났다  
정재현 집사 /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간 정규만 장로의 가족복음사

- Disk 6 : 안정규 선교사 / 소유와 권위 그리고 연합  
박영철 교수 / 다시 그 진리 앞으로
- Disk 7 : 김성로 목사 / 사명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최고의 능력
- Disk 8 : 송신호 목사 / 주와 함께 죽은 자의 삶  
이동휘 목사 /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계자가 됩시다
- Disk 9 : 류용렬 교수 / 목숨 바칠 사명을 발견했는가?  
유기성 목사 /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1세트 구입시 33,000원이며 택배비는 별도 2,5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집 Ver.5 출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 Ver.5(다섯번째) 기도정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은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입니다.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각 권 구입시 6,000원이며, 세트 구입시는 30,000원(각 권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 다음세대 스토리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다음세대 이야기

“내 의가 주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청소년복음수련회 섬김이 모임을 마치고 돌아보니, 정말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오늘 제 행동이 너무도 옳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수련회 1기를 수료하고 2기부터 5기까지 매회 섬김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더 알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섬김이 모임에 임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섬김이 모임이 복음수련회를 섬기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은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커져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보다 어떻게 하면 섬김이 지체들과 더 친밀해질까란 생각이 더 크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존재적 죄인인 저의 이런 생각은 곧 행동

으로 옮겨졌고, 오늘 섬김이 모임을 하면서 제 기분은 심히 업(up)이 돼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참 좋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제 욕심이 과해져 재미있고 웃기기 위해 노력했던 제 예전 모습이 자주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에 저는 큰 소리로 웃고, 소리 지르고, 거의 학교 생활 하듯이 섬김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한 섬김이 자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ππ 더불어 집에 와 로마서 2장을 묵상했는데 주님께서 23~24절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어 내 성격, 행동 등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T\_T 영남 1기 복음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임소정(17) 자매

##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헬렌 로즈비어의) 살아있는 믿음』

##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던 한 선교사의 고백 … “나를 일깨워 주소서”

“나를 일깨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살았던 한 선교사의 삶을 그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얼마 전 읽게 되었다.

저자인 헬렌 로즈비어는 ‘이런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한 여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범한 삶을 살았다. 지극히 평범했던 그녀가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볼만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그녀의 특출 난 능력이나 그녀의 확고한 신념 때문은 아니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된다. 실재(實在) 하시던 하나님이 그녀에게 실제(實際)가 됐을 때 그녀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 남자도 견디기 힘든 더위와 사역들이 놓인 아프리카 오지에서 홀로 감당할 시간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지인을 보며 낙담하는 과정들.

심지어 공포에 내전이 터졌을 당시에는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며 보내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과정이었다고 고백한다. 극한의 상황. 긴급한 필요. 낙담케 하는 수많은 소리들. 그때마다 그녀는 상황을 엮어주시기를 바라며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았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는 대학생 때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었다.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녀를 보며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 책 말미에 로즈비어 선교사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고백한다. 처음에 이 말은 제목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듯했다.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살아있다” 라고 하면 생명 특성이 성장, 즉 자라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즈비어 선교사는 믿음이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기초적인 믿음이나 극한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믿음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계속 이런 고백을 했다. “일깨워 주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간절한 외침으로 고백한다. “나를 일깨워 주소서.” 믿을 때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광대하심, 세밀하심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했다. 그러한 그녀를 보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임을 볼 수 있었다.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더 알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바로 기도의 자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줄 알았다. 기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믿었기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그녀는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서있다면 우리 역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이다.

(헬렌 로즈비어 저 / 288쪽 / 조이선교회 / 값 11,000원)

김선교 선교사

## ■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

최근 저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음기도신문에 오자(誤字)를 발견하고 안타까움에 섬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잘 교열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는 대신 그동안 꿈꾸며 준비해오던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 전화해주시고, 주님은 꿈꾸고 시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 ■ 후원자 명단

(2012년 2월 3일 ~ 2월 15일, 가나다순)

## △개인

김기석 김영태 신유정 유자인 이란영 이복순 이철욱A 무명x2

##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교회 서울제일교회  
순회선교단 양덕원교회 온누리교회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